

나주시 치매 전수조사 올 목표 조기 달성

22일 기준 1만2589건 조기 검진 2025년까지 60세 이상 전수조사 환자 648명·인지장애 130명 발굴

3년간 60세 이상 모두를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벌이기로 한 나주시가 올해 목표인 1만2000건 검사를 조기 달성했다.

나주시는 지난 4월부터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벌인 치매 조기 검진 전수조사 1만2589건을 지난 22일 기준 모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애초 올해는 1만2000건을 검사할 계획이었지만 해가 지나기 전에 목표의 104.9%를 달성했다.

나주시는 '나주형 치매 조기 검진 3개년 계획'(2023-2025년)을 세우고 지역민 치매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전수조사 첫해 나주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치매 환자 648명,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도 인지장애 대상자 130명을 발굴했다.

지난달 말 기준 나주시가 치매 조기 검진을 벌인 60세 이상 인구는 3만8009명으로 전체 인구의 32.4%를 차지한다.

나주에 사는 60세 이상 시민이면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진료소를 찾아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은 직접 마



나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60세 이상 가구를 찾아 치매 조기 검진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을 경로당과 대상 가구를 찾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비·치료관리비·조호물품 지원, 인식표 발급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센터는 3개년 계획 조기 완수와 원활한 검진을 위해 우편, 문자 발송, 마을 안내 방송, 현수막 게

시, 소셜미디어(SNS)·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검진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치매는 조기 발견을 통한 맞춤형 치료 시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 개선이 가능하다"며 "치매 조기 검진 전수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해 치매 걱정 없는 치매 안심 선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9일 운영 활성화 모색 학술행사

오는 29일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학술행사가 열린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이날 오후 2시 장흥읍 남외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소장 신영우)와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고재국)가 함께 주최한다.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지난 2015년 건립됐다.

기념관이 건립된 곳은 전적지인 장흥 석대들이다. 석대들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 115주년인 2009년 국가사적 498호로 지정됐다.

전남도와 장흥군은 장흥지역의 중요한 동학농민운동 유적지에 표지석을 세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내년 전남도교육청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흥 동학기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의향 장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장흥동학전' '장흥동학 목판화전' '장흥독립운동가 초상화전' 등 전시를 연중 개최할 계획이다.

고재국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념관의 성격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현장 기술지원단'은 올해 1107개 시설원에 농기를 찾아 난방 시설물 상태를 점검한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시설원예농가 1107곳 난방시설 점검

장성군이 겨울철 시설원에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 기술지원단은 올해 1107개 농가를 찾아 총 327ha 규모 시설원에 농장을 살펴볼 계획이다. 기술지원단은 시설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보온재·피복재의 손상 여부를 살피고, 난방기 호스와 노즐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기름 통로에 쌓인 분진도 제거해줄 계획이다.

장성군 기술지원단은 효율적인 난방기 사용법

을 안내해 유류비 절감을 끌어낼 예정이다.

한편 장성군은 등유 난방 농가의 유류비 절감을 위해 '엘피지(LPG) 난방 시범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설 농가에 LPG 난방시설을 설치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군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LPG 난방시설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설원에 농가의 보온 효율을 높여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농가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멧돼지·고라니 농작물 피해 신고하세요

함평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함평군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2023년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군은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6명을 선발했다.

지난 21일에는 함평군 환경보전연합 사무실에서 포획 활동 절차와 유의사항, 총기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대응 유의사항 등 안전한 포획 활동을 위한 안전교육을 마쳤다.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

의 피해를 겪은 주민의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해 야생동물을 포획한다.

피해 신고는 군청 환경관리과와 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을 하고 폐사체를 살필 예정이다. 밀렵 감시와 부상동물 구조 등의 활동도 함께 한다.

함평군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60마리, 고라니 117마리를 포획했다.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2차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냉동저장고에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은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겨울철 농작물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과 화순군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지난 22일 군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 농민들 "농민수당 연 60만원 늘려달라"

화순군-농업인단체 농업발전 간담회 벼 안정자금 10억 추가 편성 요구도

화순 농민들이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에서 60만원을 추가 지원해 달라고 화순군에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화순군과 화순군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구호성)가 연 간담회에서 오고 갔다.

화순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구북구 화순군수와 함께한 자리에서 농민수당 60만원 추가 지원, 벼 경영안정 자금 10억원 추가 편성 등 6개 사항을 건의했다.

화순군은 올해 9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1인당 60만원 상당 지역화폐를 '농민수당'으로 지급했다. 화순을 포함한 전남지역 농민단체는 한 해 지급되는 농민수당 60만원을 120만원으로 늘려 달라

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농민수당 60만원 지급은 지난 2020년 전남도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확정된 사항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화순군은 농민수당 추가 지급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에서 감액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난색을 보였다.

또 화순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간담회에서 군 예산 10억원을 추가 편성해 벼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화순군 벼 경영안정 자금은 도비 40%·군비 60% 비중으로 예산 22억30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벼 경영안정 자금 지급 농가는 5744가구였다.

화순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역 10개 단체가 모여 2016년 1월 구성된 단체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수 목 장

또 다른 만남,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